

지 상 법 석

계율은 잡념망상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③

懷此一心 本來是佛 直下無事 各各贊成
묘차일심 본래시불 직하무사 각각찬성
說修說證 都是現成
說修說證 都是現成
설수설증 도시마화
達磨來來 直指人心 見性成佛
달마동래 직지인심 견성성불
明明白白指示 大地一切眾生 都是佛
明明白白指示 大地一切眾生 都是佛
명명백백지시 대지일체중생도시불
直下認得 此淨淨自性 隨順無染
直下認得 此淨淨自性 隨順無染
직하인득 차정정자성 수순수멸

대지의 일체중생이 수억겁 오랜 세월
에 걸쳐 윤회하길 좋아하지 않고
사생육도를 돌며 길이 고힘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여 부처를 이뤄 무에자재한
경지에 들기를 원하니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진실된 말씀을
올곧게 믿어 일체를 몰락 놓고
선악을 도무지 사랑치 않으면 누구나
제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다.

諸佛菩薩及歷代祖師 發願度盡一切眾生
제불보살급역대조사 발원도진일체중생
不是無德無德 空發大願 空講大話的
不是無德無德 空發大願 空講大話的
불시무빙무거 공발대원 공강대화적
上來說法 法緣如此 且經佛祖反問明明
上來說法 法緣如此 且經佛祖反問明明
상래소설 법이여차 차경불조반복천명
叮嚀咐咐 眞語實語 無絲毫虛假
叮嚀咐咐 眞語實語 無絲毫虛假
정녕촉부 진어실어 병무사호허광
無奈大地一切眾生 從無量劫來
無奈大地一切眾生 從無量劫來
무나대지일체중생 중무량겁래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께서 일체중생
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발원하였으니
이는 근거없는게 아니라 공언히 대원
을 세웠으며 관세로 큰소리를 쳤는가.
이상과 같이 설한 바, 법이 옳으니 그
런 것이요 부처 조사께서 거듭거듭 천
명하시어 정녕 부촉하신 참 말씀엔 실

한마음 밝히면 본래가 부처요 바로
할 일이 없고 두두물물이 그대로 드러
나니 수행을 말하고 증득을 설함이 도
시 마구니의 말이라고 한다.

달마조사께서 동쪽으로 건너와서 곧
바로 마음을 가리켜 참성품을 보고 성
불한다고 명명백백히 보이셨으니 산하
대지 일체중생이 모두 부처라

당장에 이를 증득하면 이 청정한 자
성은 경계를 따르더라도 물들지 않으며

二六時中 行住坐臥 心都無異
이육시중 행주좌와 심도무이
就是現成的佛 不須用心用力
就是現成的佛 不須用心用力
취시현성적불 불수용심용력
更不須有作為 不勞纖毫言說思惟
更不須有作為 不勞纖毫言說思惟
경불요유작유위 불로섬호언설사유

선악을 사랑치 않으면 누구나 성불
팔만사천 법문 근기따라 중생 치료

所以說成佛 是最容易的事 最自在的事
소이설성불 시회용이적사 최자재적사
而且操之在我 不假求外
而且操之在我 不假求外
이차조지재아 불가구의

터럭만큼의 허황과 거짓이 없다.
어쩔거나, 대지 일체중생이 무량겁을
따라오면서

하루종일 행주좌와 중에다 마음은 늘
여여하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드러난 부처이니 모름지기 용
심이다, 용력이다 할 것도 없고,
다시금 짓느니 하느니할 필요도 없으며
털끝만큼의 언설이나 사유에도 힘을
필요가 없다.

迷流生死苦海 頭出頭沒 輪轉不已
미류생사고해 두출두몰 윤전불이
迷或醒到 背覺合塵 猶如精金投入糞坑
迷或醒到 背覺合塵 猶如精金投入糞坑
미혹전도 배각합진 유여정금투입분경
不惟不得受用 而且染污不淨
不惟不得受用 而且染污不淨
불유부득수용 이차염오불감
佛以大慈悲 不得已說出八萬四千法門
佛以大慈悲 不得已說出八萬四千法門
불이대지비 부득이설출팔만사천법문
俾各色各樣 根器不同的眾生 用藥對治
俾各色各樣 根器不同的眾生 用藥對治
비각색각양 근기부동적중생 용래대지

이렇게 부처되거든 가장 쉬운 일이
요 가장 자재로운 일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내게 있는 나의 일이지 밖에서
구할 게 아니다.

어리석게 생사고해에 빠져 들락날락
바뀌들이를 그치지 않으니
미혹하여 뒤집힌 생각을 하고 깨달음
은 커녕 속진과 하나됨에 오히려 순금
이 똥통에 빠진 것과 같다.

大地一切眾生 不生長劫輪轉
대지일체중생 불감장겁륜전
于四生六道 永沈苦海
于四生六道 永沈苦海
우사생육도 영침고해
而願成佛 常樂我淨
而願成佛 常樂我淨
이원성불 상락아정
諸佛佛祖語言 放下一切
諸佛佛祖語言 放下一切
체신불조성언 방하일체
善惡都莫思量 箇箇可以立地成佛
善惡都莫思量 箇箇可以立地成佛
선악도막사량 개개개이입지성불

(그렇다고 순금을)사용하지 못한다
할것은 아니지만 그 더러움을 감당키
어렵구나.

부처님이 대지대비로써 부득이 팔만
사천법문을 설하시어 각각각색으로 근
기가 같지 않은 중생들을 근기에 따라
치료하시교자 하시니 龍眼

불법은 부처님이 설하신대로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닦아 무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방편입니다. 먼저 계를 철저히 수지하여야 합니다. 조금 견치가 열렸다고 무예행을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만 계율을 잘물라서 하는 소치입니다. 불교가 계행을 안지키면 불교는 곧 망해요. 설사 깨침이 깊어서 계에 걸림이 없다 한지라도 함부로 계율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도가 깊은수록 중생의 사표가 되어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以戒爲師)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열반하실 때 남기신 '자신과 법을 등분로 삼고 정진하라(自體明 法體明)'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지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릇 모든 여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율이 있어 제자들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받아지님으로써 수행하는데 있어 계율과 잡념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계를 수지하여 마음을 거둬들여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세가지 무후학(無後學)이라 합니다.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공부입니다. 불법은 계율의 기초에 세워집니다. 계율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건물이 무너지고 맙니다. 불법이 일행

불법이 알맹이라면
계율은 담는 그릇
계율 안지키면
영원한 중생자리

이러한 계율은 이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불법은 반드시 계율이라는 그릇에 담겨야만 존재의미를 갖습니다. 계율은 불법의 모양새를 결정하는 수행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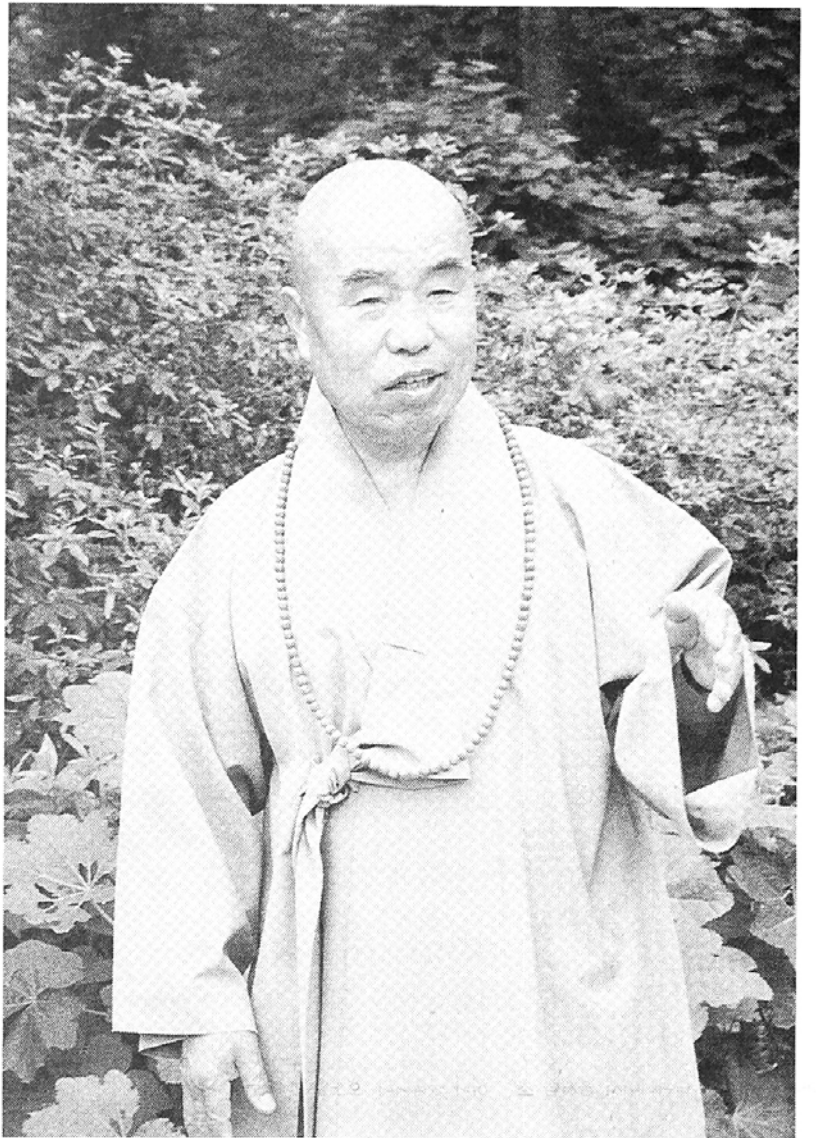
근본 4개는 불음행·불살생·불무도·불망어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술을 팔지말라는 계가 추가되어 5계가 되지요. 음욕의 비중이 가장 크고다 불수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불음행입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음욕이 돌만 돼도 출가하여 도를 이룰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었지요?

옛날 해인사에는 어찌를 드러낸 여자들은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세상이 하도 혼탁해지다 보니 요새는 허벅다리를 내놓고도 버젓이 들어와요. 스님들이 자꾸 보고 듣고 하다보면 헛갈려서 좋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때에는 "보살은 공(空)을 깨달았으므로 계율을 초월해 있으며 계행을 수지하는 것은 소승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난립할것이나 이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음욕을 녹여서 초월하지 않고 선정을 두는 이는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을려는 것과 같아서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일것이나 아무리 묘하게 깨닫는다 하더라도 모두 음욕의 근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전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약력

- 1925년 김화 생
1944년 지월스님
은사로 득도
조계종 중앙종
회의장 역임
해인사 주지 역
임
대흥사 조실(現)
해인사 율원 주
석



인간의 몸이란게 본래 그 업으로 태어난 것이어서 음행의 습을 녹인다는게 보통의 결단으로는 어렵습니다. 흔히 단식을 한다든지 일종식을 한다든지 하는것도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줄여서 음식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습니다. 음욕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더 붙타 오르고 멀리 할수록 약해지는게 음욕입니다. 본래의 완전한 인간은 그릇된 음욕으로부터 초월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위에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차츰 음욕을 초월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참는데 비중을 두기보다 건전한 생각과 생활을 지향해야 합니다. 수행정진의 밀도와 강도를 높임으로서 자연스레 극복되

도록 하세요. 억지로 참고 부정하면 그만큼의 반작용이 있어서 무척 고통스럽게 됩니다. 독자에게 물리면 몸뚱이만 벗어버리면 되지만 여성에게 물리면 세세생생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어 그것이 나의 본성을 아는 것이 성불입니다. 그러나 그 묻힌 본성은 바위덩이 같이 무거운 것이어서 쉽게 들어 올릴 수 없죠. 그 무거운 바위덩이를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바로 계율입니다. 계를 수지한 다음에는 선정을 닦아야 해요. 견치는 말로써는 표현하기가 힘들습니다. 연못의 물을 먹음에 차고 더운 것을 고기가 알지 아무리 차다고 한들 먹어보지 않

은 사람은 그것을 알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란 물랐던 것을 비로소 알게되는 것이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의증이 골뎠해야 해요. 의증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않고 멍하니 앉아있지만 해서는 무기공(無記空)에 떨어집니다. 옛날 중국의 어떤 산이 툭 떨어져 나간 자리에 큰 항아리가 하나 있어 깨뜨려보니 살아있는 사람이 한명 나왔습니다. 대도인이 나왔다고 해서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국왕의 명령으로 왕궁에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했어요. 하루 3끼 공양을 궁녀가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음욕의 업은 그대고 남아 있었던게지요. 이처럼 공에 떨어진 자는 몇만년이 지나도 깨달음은 커녕 그대로 있습니다. 업

일봉 서경보 큰스님 입적 생신날과 계사날이 같게 입적하신 (생신 음 5월 9일, 입적 음 5월 10일) 일봉 서경보큰스님
올해 입적하실 것을 예언 병자 원단에 지안스님과 선문담에서
『일봉:빨래나 하려나.』
『지인:봉화대에 불 지필까요.』
『일봉:그러... 그러걸야.』
최초로 공개하는 생전에 제자와 선문담의 내용이 담긴 책
해는 왜! 서쪽에서 떠서 꼭 동쪽으로 지나
출판사 및 전국서점에서 판매
도서 무심 글쓴이 유 용 주
출판 7,000원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쁜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강안내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초발심사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범명문론
○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기초의식(도량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움
○ 경전강좌=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통종 교
3. 수업요령
① 입학금: 3만원 (제학기간 유효)
② 수업료: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③ 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일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립니다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문의처: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